

교정환자의 교정치료 결정요인

김 홍 식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Decision factors of Orthodontic Treatment by orthodontic patients

Hong-Sik Kim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cision factors to start orthodontic treatment with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having experience in orthodontic treatment at a dental clinic or hospital because of malocclusion.

Method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decision factors to begin orthodontic treatment with 330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or Gyeongsangbuk-do who had experience in orthodontic treatment at a dental clinic or hospital because of malocclusion, and out of 330 questionnaire sheets, total 294 (89.1%) sheets were employ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ones unreliably or erroneously answered.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decision factors for orthodontic treatment, such factors as ‘a dentistry-related person’s suggestion’, ‘feeling necessity on one’s own’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majoring in health units than those having non-dental health majors, and students residing in small and medium cities are influenced more significantly by this decision factor, ‘an acquaintance’s suggestion’, than those liv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r big cities, and students who started orthodontic treatment at elementary school were mo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actor, ‘feeling necessity through the public media’.

Conclusion: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decision on orthodontic treatment, no influence was found in sexual difference, and each of the decision factors influenced them considerab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ir residence, economic power, majors, or time to start orthodontic treatment.

◉ **Key words:** Decision factors, Orthodontic patients, Orthodontic treatment

* 이 논문은 2018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18106).

Corresponding author	Name	김 홍 식	Tel.	*** - **** - **** 054-420-4051	E-mail	moa28kr@naver.com
	Address	경북 김천시 대학로 214(삼락동 754)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Received	2020. 4. 9	Revised	2020. 6. 11	Accepted	2020. 6. 18	

I. 서론

최근 치의학 분야에서는 치열 및 안모의 심미성 추구를 위한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치아 교정은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안모의 변화로 인해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에 특히 관심이 많은 20대의 연령층에서 치아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1).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짐으로 인해 경제활동분야 또한 다양한 선택사항들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Choi et al., 1992).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고령화 현상, 사회복지시스템의 지향, 폭넓은 의료 관련 지식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Ahn, 2009). 치아교정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정치과병·의원을 선택하고 있으며(Lee & Shim, 2015), 자신이 선택한 병원을 내원하면서 느끼는 교정전문치과병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시장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한 환자들은 자신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병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통해 또 다시 방문할건지를 결정하거나 주위의 다른 환자들에게 병원을 권하게 된다(Su, 2013). 환자의 치료병원 결정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쟁이 심화된 의료시장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한 소비자들은 우선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치료를 위한 첫 내원에서의 만족도를 통해 그 다음 재방문을 결정하거나 주위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권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Jung, 2009). 또한 환자가 병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교정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교정치료 시 치과교정의사, 치과직원, 환자와의 관계를 더욱 증

진시키고 보다 좋은 치료결과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치과병·의원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있어왔으나, 교정치과병·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정전문치과병·의원에 내원하여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시작을 결정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병원의 내적요인을 배제하고 외적요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교정치료를 받는 주 고객층이 치료의 특성상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에 착안하여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치과병·의원에 내원하여 치과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정치료를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병원관련 직접적인 요인 이외의 주변의 외적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러한 교정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부정교합 환자의 교정치료 시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과병·의원들의 마케팅 전략과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여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조사는 부정교합을 원인으로 교정치과병·의원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지역 남녀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원을 선정 후 설문문항설명과 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으로 조사원이 설문지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수거된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330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4부를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조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교정치료 결정요인 관련 4문항 등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요인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정치료 결정요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각 요인별에서의 교정치료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성검정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20.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94명 중 여성이 236명(68.4%)으로 남성이 58명(16.8%)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52명(44.1%)으로 3학년 80명(23.2%), 1학년 44명(12.8), 4학년 18명(5.2%)보다 높았고, 전공학과는 치과관련학도가 160명(46.4%)으로 보건계열학과 74명(21.4%), 비치과보건계열학과 60명(1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중소도시가 174명(50.4%)으로 대도시 70명(20.3%), 농어촌 50명(14.5%)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경제력수준은 중류층이 270명(78.3%)으로 하류층16명(4.6%), 상류층8명(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료지역은 중소도시 164명(47.5)%, 대도시 116명(33.6%), 농어촌 14명(4.1%)순으로 나타났고, 교정치료 시작시기는 대학교 98명(28.4%), 고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N)	Percentage(%)
gender	male	58	16.8
	female	236	68.4
department	dentistry related department	160	46.4
	department of health units	74	21.4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60	17.4
residence	big city	70	20.3
	small and medium cities	174	50.4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50	14.5
economic power	the upper class	8	2.3
	the middle class	270	78.3
	the lower class	16	4.6
treatment region	big city	116	33.6
	small and medium cities	164	47.5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4	4.1
treatment start time	elementary school	50	14.5
	middle school	54	15.7
	high school	92	26.7
	college(university)	98	28.4
total		294	100

학교 92(26.7%), 중학교 54명(15.7%), 초등학교 50명(14.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결정요인

1) 교정치료 결정요인

교정치료 시작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4가지의 요인을 선정하였고, 결정요인 I ‘주변의 지인의 권유’, 결정요인 II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

결정요인 III ‘대중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결정요인 IV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등으로 분류하여 4가지 요인 중에서 교정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2.77±1.13)가 가장 교정치료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2.59±1.06), ‘대중매체를 통해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2.37±1.15)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지인의 권유’(1.65±0.57)는 교정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cision factors of orthodontic treatment

Classification	Percentage(%)					Mean±SD
	Very unlikely	Somewhat unlikely	Neutral	Somewhat likely	Very likely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118 (40.1)	162 (55.1)	14 (4.8)	0 (0)	0 (0)	1.65±0.57
Recommendation of dentistry	46 (15.6)	70 (23.8)	104 (35.4)	54 (18.4)	20 (6.8)	2.77±1.13
The mass media	72 (24.5)	108 (36.7)	66 (22.4)	28 (9.5)	20 (6.8)	2.37±1.15
Self-awareness	46 (15.6)	94 (32.0)	104 (35.4)	34 (11.6)	16 (5.4)	2.59±1.06

Table 3. Decision factors I of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N	Mean ± SD	p-Value	
gender	male	58	1.66±0.61	0.895
	female	236	1.64±0.56	
department	dentistry related department	160	1.6±0.61	0.267
	department of health units	74	1.68±0.58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60	1.73±0.45	
residence	big city	70	1.11±0.32 ^c	0.000***
	small and medium cities	174	1.88±0.48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50	1.6±0.64 ^b	
economic power	the upper class	8	1.75±0.46 ^{ab}	0.002**
	the middle class	270	1.61±0.56 ^b	
	the lower class	16	2.13±0.62 ^a	
treatment region	big city	116	1.74±0.63 ^a	0.008**
	small and medium cities	164	1.61±0.51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4	1.29±0.47 ^b	
treatment start time	elementary school	50	1.6±0.76	0.378
	middle school	54	1.56±0.57	
	high school	92	1.65±0.48	
	college(university)	98	1.71±0.54	
	total	294	1.65±0.57	

*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bc} :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결정 요인 I

교정치료 결정요인 중 ‘주변 사람의 권유’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학생이 농어촌이나 대도시 학생보다 ‘주변 사람의 권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경제력 정도에서는 하류층의 학생이 상류층 및 중류층의 학생보다($p < 0.005$), 치료를 받은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이 농어촌지역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보다 ‘주변 사람의 권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성별, 학생의 전공, 교정치료 시작시기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Table 3).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결정 요인 II

교정치료 결정요인 중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가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이 보건계열학과인 학생이 치과관련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보다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05$), 경제력 정도에서는 하류층과 중류층의 학생이 상류층의 학생보다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그러나 성별, 거주지, 교정치료 지역, 교정치료 시작시기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Table 4).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결정 요인 III

교정치료 결정요인 중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이 치과관련학과와 보건계열학과 학생이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치료시작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때 시작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Table 4. Decision factors II of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Recommendation of dentistry		
		N	Mean ± SD	p-Value
gender	male	58	2.55±1.12	0.895
	female	236	2.82±1.13	
department	dentistry related department	160	2.70±1.08 ^b	0.002**
	department of health units	74	3.14±1.08 ^a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60	2.50±1.21 ^b	
residence	big city	70	2.74±1.21	0.747
	small and medium cities	174	2.75±1.09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50	2.88±1.15	
economic power	the upper class	8	1.25±0.46 ^b	0.000***
	the middle class	270	2.8±1.12 ^a	
	the lower class	16	3.00±1.03 ^a	
treatment region	big city	116	2.62±1.13	0.121
	small and medium cities	164	2.84±1.13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4	3.14±1.09	
treatment start time	elementary school	50	2.92±1.14	0.490
	middle school	54	2.81±0.99	
	high school	92	2.63±1.12	
	college(university)	98	2.8±1.20	
	total	294	2.77±1.13	

*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bc} :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Table 5. Decision factors III of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The mass media		
		N	Mean ± SD	p-Value
gender	male	58	2.48±1.37	0.424
	female	236	2.35±1.09	
department	dentistry related department	160	2.52±1.24 ^a	0.007*
	department of health units	74	2.41±1.03 ^a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60	1.97±0.96 ^p	
residence	big city	70	2.49±1.26	0.646
	small and medium cities	174	2.34±1.16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50	2.32±0.98	
economic power	the upper class	8	1.75±1.39	0.067
	the middle class	270	2.36±1.15	
	the lower class	16	2.88±0.81	
treatment region	big city	116	2.26±1.01	0.352
	small and medium cities	164	2.44±1.25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4	2.57±0.94	
	elementary school	50	3.04±1.19 ^a	
treatment start time	middle school	54	2.63±0.96 ^p	0.004**
	high school	92	2.38±1.00 ^p	
	college(university)	98	2.54±1.20 ^p	
	total	294	2.37±1.15	

*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bc} :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Table 5. Decision factors III of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Self-awareness		
		N	Mean ± SD	p-Value
gender	male	58	2.82±1.16	0.058
	female	236	2.53±1.02	
department	dentistry related department	160	2.53±1.06 ^{ab}	0.041*
	department of health units	74	2.85±1.02 ^a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60	2.43±1.06 ^p	
residence	big city	70	2.57±1.08	0.881
	small and medium cities	174	2.58±1.07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50	2.66±1.00	
economic power	the upper class	8	1.25±0.46 ^p	0.001***
	the middle class	270	2.64±1.05 ^a	
	the lower class	16	2.59±1.06 ^a	
treatment region	big city	116	2.57±1.09	0.335
	small and medium cities	164	2.57±1.05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4	3.00±0.78	
treatment start time	elementary school	50	3.04±1.19 ^a	0.004**
	middle school	54	2.63±0.96 ^p	
	high school	92	2.38±1.00 ^p	
	college(university)	98	2.54±1.20 ^p	
	total	294	2.59±1.06	

*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bc} :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교 때 시작한 학생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그러나 성별, 거주지, 경제력, 교정치료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Table 5).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결정

요인IV

교정치료 결정요인 중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이 보건계열학과 학생이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보다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경제력에서는 중류층과 하류층의 학생이 상류층의 학생보다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교정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5$), 치료시작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때 시작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시작한 학생보다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교정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그러나 성별, 거주지, 교정치료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Table 6).

IV. 고찰

치아는 사람의 첫인상과 외모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있어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부정교합 환자들이 치아교정을 위해 교정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요인자인 얼굴의 미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치아는 치아형태, 배열상태, 안모의 개선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 치과교정치료 목적의 하나인 심미성 개선여부는 치료결과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다(Park & Suhr, 1991). 외래환자의 병원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권유, 명성, 종합진료, 이용편리, 주변의 추천, 타병원의 추천, 질병의 위중 등이 병원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라고 하였다(Lee, 1997). 또한 환자들의 정보탐색 특성에서 병원

선택 시 주요 정보원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의 권유가 66.7%, 다른 병원 의료진의 소개 17.4%,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15.9%를 나타냈다. 인터넷 및 대중매체의 발달과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정보탐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전히 구전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Hwang et al., 2010). 환자들은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구강건강의 확보는 물론 이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성 면에서도 자기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보탐색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방문하며, 정보습득의 경로로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Choi, 2009). Kim(2015)의 연구에서도 병원 선택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결정요인에 주변지인의 권유에 의한 영향은 매우 적었고,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교정치료를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정치료의 특성상 교정치료가 가능한 교정치과병·의원이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포의 편차가 있고, 교정치과병·의원 또한 치과전공진료과목 중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의원이 일반적인 치과병·의원 중에서 매우 적게 분포되어있고, 다양한 대중매체의 눈부신 발전도 교정치료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여성일수록 최근에 치과를 방문한 경우일수록 사전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크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인터넷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검색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Choi,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교정치료 결정요인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여성 68.4%, 남성 16.8%로 Choi(2009)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교정치료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심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의 영향은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가 비보건계열 학생들 보다 치과관련 종사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학생은 '주변 지인의 권유' 요인에서 농어촌 지역학생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학생의 경우 생활환경이나 의료환경 등의 차이로 주변지인의 권유가 교정치료 결정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때 교정치료를 시작한 학생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요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저학년일수록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정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매체를 통해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지인의 권유'는 교정치료 결정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치과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이므로,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질환이나 일반 치과 질환자들의 병·의원의 결정요인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조사대상 지역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대학의 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지역의 다양화와 표본수의 증가 및 이번 조사에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찾아내고 선정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교정치료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교정치과병·의원 에 내원하여 치과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330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4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의 영향은 전공이 보건계열인 학생이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았으며, 중소도시 거주학생은 '주변 지인의 권유'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았고, 하류층인 학생은 '주변 지인의 권유'와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쳤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학생은 '주변 지인의 권유'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때 교정치료를 시작한 학생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껴서'와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교정치료 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가 가장 교정치료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매체를 통해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지인의 권유'는 교정치료 결정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정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력의 정도와 전공의 차이 및 교정치료 시작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각 결정요인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교합 환자들의 교정치료 시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병원 외적요인들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치과병·의원들의 고객유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Ahn ES. Association of Quality Indicators of Dental Service With Pati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2009.
- Cho WH, Kim HJ, Lee SH.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Medical Care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5(1), 53-63, 1992.
- Choi HS. Impact of information search on the choice of dental institution. J Dent Hyg Sci, 9(5), 587-592, 2009.
- Hwang SI, Lee HJ, Kim JK, Cho WH, Kim JM, Kang HY. Hospital attributes considered by patients with spinal diseases in choosing speciality or general hospitals. KJ-HSM, 15(2), 27-43, 2010.
- Jung MH. Current trends in orthodontic patients in private orthodontic clinics. Korean J Orthod, 39(1), 36-42, 2009.
- Kim AH. A study on orthodontic clinic patients treatment hospital determinants and satisfac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Ewha woman, 2015.
- Kim JS, Lee SO. Analysis of elements which affect treatment time of straitening tooth of orthodontic patients in some areas. J Korean Acad Dent Hyg 13(3),173-184, 2011.
- Lee GS. Study on Selection Factor in Choosing Dental Clinic. Korean Acad Dent Tech, 31(2), 15-22, 2009.
- Lee SH, Choi KS, Kang MG, Cho WH. Comparative Analysis of Models for Measuring Consumer Satisfaction in Health Care Organizatio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4(1), 55-60, 2001.
- Lee HN, Shim HS. Choice motivation of dental clinics by patients. J Korean Soc Dent Hyg, 15(5), 759-766, 2015.
- Park SK, Suhr CH. A cephalometric study on the soft tissue profile changes by orthodontic treatment in female patients. Korean J Orthod, 21(1), 113-130, 1991.
- Su JM.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Services Influence on Revisit of Dental Clinics at Age Twenty in the City of Seoul.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Woo S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ntal patient' satisfactio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4.